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관점 연구*

김진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קֹהֶלֶת(코헬렛/전도자)에게 귀속되는 전도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죽음에 관한 논의 중 하나를 제시한다.¹ “모든 것이 헛되다”(헤벨)라는 반복적인 후렴구와 죽음의 보편성에 대한 직설적인 관찰로, 전도서는 역사를 통틀어 해석자들에게 도전 을 제기해왔다. 성경에 전도서만큼 다양한 해석이 제안된 책도 드물다.² 이 해석학적 도전은 코헬렛의 죽음과 필멸성에 관한 수많은 진술을 검토할 때 특히 두드

*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1 코헬렛이란 말은 ‘공동체의 소집 혹은 모음’이라는 뜻을 지닌 קָהָל의 칼 여성 단수 분사형이다.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583.

2 참고, T.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15-17.

러진다.³

많은 독자들에게, 코헬렛의 죽음에 관한 관찰은 비판적이고, 심지어 허무주의적으로 보인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전 9:5)

- 3 코헬렛의 죽음의 관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었다. 1) 죽음은 평등하고 허무하다는 관점. 학자들은 전도서가 죽음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보편적 현실로 본다고 말한다. 썬(C. Sun)은 다른 메길롯 텍스트와 달리 죽음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 없이 지우고 기억과 유산을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C. Sun, “Ecclesiastes among the Megilloth: Death as the Interthematic Link,”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2 (2017): 185-206. 2)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의 관점. 타케우치(K. Takeuchi)에 의하면, 전도서가 죽음이 삶의 불의를 드러내고 사후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K. Takeuchi, “Death and Divine Judgement in Ecclesiastes”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5). 전도서 3:19-21에서 인간과 동물의 운명이 같은지 묻고, 신의 정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C. 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8C; New York: Doubleday, 1997), 173. 3) 죽음 속에서 삶을 즐기라는 관점. 여러 학자는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며 단순한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권하는 “카르페 디엠” 윤리를 강조한다. 폭스(M. V. Fox)는 코헬렛이 먹고 마시고 일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조언한다고 본다.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을 덮기 때문이다. M. V. Fox, *The JPS Bible Commentary: Ecclesiaste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95. 이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실용적 태도다. Longman, *읽글*, 233. 올터(R. Alter)는 기쁨이 죽음의 그림자를 상쇄하는 신의 선물이라고 본다. R. Alter, *The Wisdom Books: Job, Proverbs, and Ecclesiast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0), 356. 4) 비판인가 현실인가의 관점. 죽음에 대한 전도서의 태도는 논쟁적이다. 쉴즈는 죽음이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며 깊은 비판을 보여준다고 본다. M. A. Shields,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81. 반면, 시오(C. L. Seow)는 죽음의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냉정한 현실주의라고 주장한다. Seow, *읽글*, 46. 전도서 12:1-7은 노화와 죽음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비극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Fox, *읽글*, 83. 한국 학자 중에 전도서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두드러진 학자는 구자용이다. 그는 전도서가 담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인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와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전도서의 구조 분석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1 (2012.3): 82-104; 구자용, “죽음 - 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실존 : 구약성서적 창조와 지혜 전승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9/3 (2013.9.), 348-375. 차준희도 전도서 9장의 구조와 신학적 메시지를 분석하며, 텍스트를 네 가지 주요 부분(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시기와 우연, 지혜의 능력과 무능력)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전도서 9장이 죽음 앞에서의 삶, 인간의 한계, 그리고 지혜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3 (2010.9), 196-217.

와 같은 진술과 인간과 동물의 죽음 비교(전 3:19-20)는 사후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절들은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코헬렛을 정경 내의 회의주의자나 심지어 배교자의 목소리로 분류하게 했다.⁴ 그러나 이 논문은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에 대해 더 미묘한 입장을 취하는데, 특히 그의 수사적 전략과 신학적 목적을 인식하고 이렇게 접근한다. 이 연구는 코헬렛을 그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그의 지혜를 더 큰 정경적 맥락 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코헬렛의 죽음에 관한 관점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지혜 문학이 인류의 가장 심오한 존재론적 관심사 중 하나와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헬렛의 죽음에 관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면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히브리어 텍스트의 주석적 분석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 전도서에서 38번 등장하고 책 전체에 걸쳐 라이트모티프로 기능하는 **הָבֵל**(헤벨/헛됨)의 의미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⁵

4 레이니(A. F. Rainey) 같은 학자는 코헬렛을 회의주의자로 본다. 전도서가 삶의 의미와 신의 정의를 묻는 점에서 불가지론자와 비관주의자에게 매력적이라고 지적한다. A. F. Rainey, "A Study of Ecclesiastes,"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5/1 (1964): 148-157. 로버트 고디스(R. Gordis)도 코헬렛을 회의주의자로 본다. 전통적 지혜와 덧없는 쾌락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지만, 완전히 배교자는 아니라고 본다. R. Gordis, *Kohleth—The Man and His World*, 3rd ed.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59-60. 크렌쇼(J. L. Crenshaw)에 의하면 일부 학자는 코헬렛의 의심이 배교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J. L. Crenshaw, *Ecclesiastes: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47.

5 C. G. Bartholomew,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04-107. 바톨로뮤(C. G. Bartholomew)는 전도서 1:2의 히브리어 표현이 최상급이기에 "utterly enigmatic"(완전히 수수께끼 같은)이라고 번역한다. 바톨로뮤가 열거하듯이, 헤벨에 대해 "의미 없는",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거품", "환각", "일시적임", "숨결"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한다. DCH는 헤벨의 의미로 헛됨, (때로 우상숭배와 연관지어) 무가치함, 호흡 등을 주된 의미로 등록하고 있다. D. J. A. Clines, et al. eds., "הָבֵל", in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485-486.

방법론은 또한 문학적 분석을 포함하며, 죽음에 관한 진술이 책의 전체 구조와 수사적 전략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검토한다. 여기에는 코헬렛이 그의 담론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 과장법, 역설, 그리고 잠언적 지혜의 사용을 포함한 문학적 장치의 고려가 포함된다. 라이켄(L. Ryken)이 관찰한 것처럼 전도서는 문학적 양극성의 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성은 죽음을 다루는 구절에서 특히 분명하다.⁶

또한, 이 연구는 전도서를 다른 성경 지혜 문학 및 히브리 성경의 더 넓은 신학적 틀과 관련시키는 정경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접근법은 전도서를 개별 작품으로서의 온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정경 내의 그 위치를 인식한다. 차일즈(B. S. Childs)가 주장하듯이, 정경적 접근법은 책의 신학적 실체를 그것이 성경으로 기능하는 신앙 공동체와 관련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⁷

이 논문은 분석의 여러 단계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첫째, 전도서에서 직접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주요 구절을 검토하고, 그들의 문학적 맥락과 수사적 기능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הַבְּרִיאָה**(헤벨/헛됨),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한계를 포함한 죽음과 관련된 코헬렛의 주요 신학적 주제를 탐구할 것이다. 셋째, 코헬렛의 죽음에 관한 담론이 히브리 성경 및 외경의 다른 지혜 문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고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가 현대 신학적 반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다.

6 L. Ryken, *Words of Delight: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319-328.

7 Childs, *읽기*, 584.

2. 전도서의 죽음에 관한 주요 구절

1) 전도서 3:18-22: 인간과 동물의 공통된 운명

코헬렛의 가장 곤혹스러운 필멸성에 대한 성찰 중 하나는 전도서 3:18-22에 나타나며, 여기서 그는 인간과 동물의 공통된 운명을 관찰한다.

-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 (19)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 (20)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 (21)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개역개정)

이 구절은 일부에 의해 인간과 동물의 죽음 사이의 의미 있는 구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인간의 독특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전통적 믿음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킨다. 그러나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복잡한 수사적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프레더릭스(D. C. Fredericks)가 말하듯이, 코헬렛이 사람과 동물을 비교한 것은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결국 죽는다는 현

www.kci.go.kr

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⁸

이 구절은 목적에 대한 진술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틀은 코헬렛의 비교가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인간의 자부심을 물리적 필멸성의 냉철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21절의 수사적 질문(“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은 반드시 인간과 동물의 영의 다른 목적지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검증의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⁹

중요하게도, 이 구절은 3:1-15에서의 코헬렛의 유명한 시간과 계절에 대한 성찰 직후에 나타나며, 이는 모든 사건의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를 강조한다. 이 맥락은 인간과 동물의 필멸성에 대한 명상이 절대적 무익함의 진술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더 큰 성찰의 일부로 읽혀야 함을 시사한다.

2) 전도서 9:1-10: 죽음은 위대한 평형추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논의는 전도서 9:1-10에 나타나며, 여기서 코헬렛은 모든 인간적 구별을 평등화하는 보편적 인간 운명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성찰한다.

- (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
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

8 D. C. Fredericks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Nottingham: Apollos, 2010), 121-123. 프레드릭은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노동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점을 말한다.

9 Seow, 윗글, 104-105.

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 (3)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9:1-3). (개역개정)

이 구절은 죽음을 도덕적 지위나 종교적 헌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מִכָּל הַיְּמִינִים**(미크레 에하드/같은 사건)로 제시한다. 코헬렛은 이를 문제로 여기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라고 부른다. 죽음의 보편성은 언약 신학의 중심인 도덕적 구별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톨로뮤가 관찰하듯이, 여기서 코헬렛의 주된 관심은 미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는 청중들이 인간 존재의 가장 직접적인 현실인 물리적 죽음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¹⁰ **מִתַּחַת הַשָּׁמַיִם**(타하트 하와메스/해 아래)라는 반복적인 한정어는 중요하며, 코헬렛의 관찰이 현재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에 의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구절은 삶이 지속되는 동안 즐기라는 유명한 권고(9:7-10)로 계속되며,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9:10)라는 진술로 절정에 이른다. 롱맨(T.

10 Bartholomew, 윗글, 299-307.

Longman III)은 이 구절을 코헬렛이 현재를 충실히 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인간의 활동, 계획, 이해를 끝내기 때문이다. 이는 쾌락주의가 아니라 삶의 짧음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태도다.¹¹

3) 전도서 12:1-8: 죽음의 시적 묘사

아마도 전도서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에 대한 논의는 12:1-8의 결론 시에 나타나며, 여기서 코헬렛은 확장된 은유를 사용하여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묘사한다.

-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중략)

-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개역개정)

이 시적 묘사는 일련의 가정적 은유를 사용하여 노년기의 감각적 심리적 쇠퇴, 떨리는 팔다리, 치아의 손실, 시력의 저하, 감소된 청력과 연약함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축소,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식욕과 욕

11 Longman, 위글, 229-231. 롱맨은 이를 코헬렛의 더 큰 갈등 속에서 본다. 삶의 기쁨은 덧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전도서 9장 7-9절과 연결짓는다. 코헬렛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결혼 등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허락된 선물로 누리라고 한다. 이는 살아있는 동안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죽음은 그런 모든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망의 쇠락 등을 묘사한다.¹² 시는 죽음을 램프의 파손(금사발과 은줄)과 샘에서 물 향아리의 파손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로 절정에 이르며,¹³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선언이 뒤따른다.

이 마지막 진술은 코헬렛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머피(R. E. Murphy)는 전도서 12장 7절을 죽음에 대한 시적 묘사의 절정으로 본다. 이 구절은 인간 삶의 쇠퇴를 묘사하는 전도서 12장 1-7절의 결론이다. 그는 이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된다고 본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머피에게 전도서 12장 7절은 이 원래 상태로의 회귀다. אֶפְרָיִם(아파르/몸)는 땅으로 돌아가고, אֲנִי(루아흐/영)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¹⁴

이 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고로 들지어져 있으며,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절망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한 반응 능력이 있는 동안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엔스(P. Enns)가 관찰하듯이, 이 시는 무익함의 표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안 신앙의 동기부여로 기능한다.¹⁵

12 Fox, 윗글, 351-352; Longman, 윗글, 268-273; R. E. Murphy,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23A; Dallas: Word Books, 1992), 120.

13 Longman, 윗글, 272-273.

14 Murphy, 윗글, 119-120. 머피는 루아흐를 “영혼”이 아니라 “숨” 또는 “생명의 숨”으로 해석한다. 이 구절은 내세나 영혼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숨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는 구약의 인간학에서 루아흐가 하나님의 생명 부어를 뜻하는 것과 일치한다(창 2:7; 욥 34:14-15).

15 P. Enns, *Ecclesiastes* (Two Horizons Old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1), 103-113.

4) 세 본문의 신학적 함의 종합

위에서 분석한 세 본문(3:18-22; 9:1-10; 12:1-8)은 코헬렛의 죽음 관에 대한 다층적이면서도 일관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1) 죽음의 인식론적 기능. 본문 모두 죽음을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3:21의 수사적 질문, 9:1의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언급, 그리고 12:7의 영의 귀환에 대한 신비는 모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강조한다. 브라운(W. P. Brown)의 분석에 따르면, 코헬렛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에게 인식론적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¹⁶

(2) 죽음의 평등화 기능과 그 신학적 역설. 3:19-20에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 운명, 9:2-3에서 의인과 악인의 동일한 결말은 모두 죽음의 평등화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삶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킨다. 12:1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고는 이러한 평등화가 오히려 신앙적 결단의 긴급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핑크(N. Lohfink)는 이러한 현상을 죽음의 그림자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조명하는 신학적 역설로 해석한다.¹⁷

(3) 죽음과 하나님 주권의 변증법적 관계.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죽음의 불가피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시킨다. 3:18의 하나님의 시험, 9:1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 12:7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술은 모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 있음을 시사한다. 크뤼거(T. Krüger)의 해석에 의하면, 이는 죽음을 하

16 William P. Brown,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45-48.

17 Norbert Lohfink, *Qob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Sean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54-57.

나님과 무관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이해하는 신학적 통찰을 반영한다.¹⁸

(4) 카르페 디엠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죽음. 특히 주목할 점은 세 본문이 모두 죽음에 대한 성찰 후에 현재 삶을 긍정하는 권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22의 자기 일에서 찾는 즐거움, 9:7-10의 구체적인 삶의 기쁨들, 12:1의 청년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은 모두 죽음의 인식이 현재 삶의 포기가 아닌 적극적 수용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팍스는 이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역설적으로 삶을 재발견하게 만드는 지혜의 과정으로 분석한다.¹⁹

(5) 종말론적 개방성. 세 본문은 모두 사후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종말론적 개방성을 보여준다. 3:21의 질문 형식, 9:1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2:14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모두 경험적 관찰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머피는 이러한 특징을 신중하게 유보된 종말론적 입장으로 해석한다.²⁰

이 세 본문을 종합할 때, 코헬렛의 죽음관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신학적 구조를 갖는다: (1)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해석학적 렌즈로 가능하며, (2) 이 한계의 인식은 허무주의가 아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이어지고, (3) 결과적으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 귀결된다. 이는 전통적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궁극적 한계 상황을 통해 신앙과 삶의 의미

18 Thomas Krüger, *Qoheleth: A Commentary*, trans. O. C. Dean Jr.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87-90.

19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234-237.

20 Murphy, *Ecclesiastes*, 92-94.

를 더 깊은 차원에서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본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주제들은 더 깊은 신학적 탐구를 요구한다. 특히 세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헤벨” 개념, 죽음과 하나님 주권의 관계, 그리고 필멸성 인식이 현재 삶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본문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코헬렛의 죽음 신학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3. 전도서의 죽음 관련 신학적 주제

앞서 분석한 주요 본문들(3:18-22; 9:1-10; 12:1-8)에서 도출된 세 가지 핵심 신학적 주제는 코헬렛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첫째, “헤벨” 개념은 죽음의 관점에서 본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해석학적 열쇠로 기능한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필멸성 사이의 긴장은 코헬렛 신학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셋째, 필멸성의 인식이 현재 삶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코헬렛의 실천적 지혜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 세 주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고찰될 때 코헬렛의 독특한 죽음 신학의 전모가 드러난다.

1) הָבֵל(헛됨/증기)의 개념

코헬렛의 죽음관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헛됨”(KJV, ESV) 또는 “무의미함”(NIV)으로 번역되는 헤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이 용어는 전도서에 38번 나타나며, 서두와 결말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 12:8). 헤벨의 문자적 의미는 “증기” 또는 “숨”으로,

일시적이고 비실질적이며 궁극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²¹

죽음과 필멸성에 적용될 때, 헤벨은 절대적 무의미함이 아니라 인간 삶의 덧없는 특성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전달한다. 밀러(Douglas B. Miller)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 전도서에서 핵심적이고 다층적인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밀러는 헤벨이 비실체성, 일시성, 불쾌함이라는 세 가지 비유적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합쳐져 삶의 한계와 도전을 반영하는 ‘증기-상징’을 형성한다고 본다.²² 헤벨은 절대적인 무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파악하기 어렵고, 덧없으며,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코헬렛이 삶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현실주의’ 관점과 맞닿는다.²³ 밀러는 헤벨이 수사적으로 작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삶의 불가해함을 받아들이고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분석한다. 이는 냉소주의가 아니라 삶의 수수께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제시한다.²⁴ 이 해석은 코헬렛이 하나님의 행동의 신비를 인정하는 전도서 11장 5절과 같은 구절과 일치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헤벨로 특징짓는 코헬렛의 행위는 인간 존재를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신비

21 BDB는 “הֶבֶל”의 일차적 의미로 “증기, 호흡”으로 등록하고 있다. F. Brown, et al. eds., “הֶבֶל”, i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erickson, 1979), 210. Clines, et al. eds., 윗글, 485-486.

22 D. B. Miller,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h's Work*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28-29, 153-154.

23 윗글, 171-173.

24 윗글, 175-183.

롭고 역설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²⁵ 팍스는 코헬렛의 헤벨을 주로 “부조리”로 해석한다. 이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며, 합리적 의미를 무너뜨린다. 그는 헤벨이 단순히 “허무”, “무익”, 또는 “덧없음”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적 비합리성을 뜻한다고 본다. 즉, 인간의 일관성 욕구와 세상의 모순이 충돌하는 것이다. 팍스는 헤벨을 코헬렛이 삶의 경험을 평가하는 단어로 보고, 행동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존재가 억압적이고 비극적이라고 여긴다. 이는 코헬렛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며, 비관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의 내재된 모순에 대한 비판이다.²⁶ 이러한 신비와 한계의 인정은 허무주의와 동등하지 않으며, 인간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는 지혜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2)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필멸성

전도서 전체에 걸쳐, 코헬렛은 필멸 존재의 명백한 불의와 부조리와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긴장은 그의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특히 분명하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선언한다. 이 진술은 인간이 초월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²⁷

마찬가지로, 전도서 7장 13-14절에서 코헬렛은 충고한다. “하나

25 이은애도 전도서에서 ‘헤벨’은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으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재 삶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지혜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이은애,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2024.12), 282-310.

26 Fox, 윗글, 27-42.

27 Longman, 윗글, 117-119.

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머피는 13절을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생각하라는 권고로 본다. “급게 하신 것을 곧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결정이 바뀔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을, 그것이 급게(어렵거나 혼란스럽다) 보이든 아니든, 바꿀 수 없다. 머피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²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죽음을 궁극적 무의미함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 질서의 일부로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틀을 제공한다.

프레더릭스가 주장하듯이, 죽음에 대한 코헬렛의 명백한 비관주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확인으로 균형을 이룬다.²⁹ 코헬렛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항상 잘 되고 나쁜 사람이 항상 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3) 필멸성의 관점에서 본 현재 삶의 가치

죽음에 대한 그의 예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 혹은 아마도 그 때문에 — 코헬렛은 반복적으로 현재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의 유명

28 Murphy, 윗글, 70.

29 Fredericks, 윗글, 50-52, 101-103, 209-215, 232, 241-243, 247-248. 프레더릭스는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히브리어 헤벨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는 헤벨을 “일시적” 또는 “덧없는” 것으로 보고, 죽음은 삶의 짧음을 보여주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실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전도서는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통해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는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한 ‘현재를 즐기라’(carpe diem)는 구절들(2:24-26, 3:12-13, 5:18-20, 8:15, 9:7-10)은 기본적인 인간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기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권고들은 쾌락주의적이지 않고 신학적이며, 각각은 즐거움의 능력을 하나님의 제공에 귀속시킨다.

프레더릭스가 말듯이,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허무주의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현재에 제공하는 단순한 즐거움에 대한 고조된 감사로 이어진다.³⁰ 이 관점은 그것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가치 있게 여기는 더 넓은 성경적 지혜 전통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코헬렛이 이러한 즐거움에 대한 권고를 윤리적 맥락 내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전도서 11장 9-10절에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젊음을 기뻐하라고 조언하지만 즉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덧붙인다.³¹ 마찬가지로, 전도서 12장 13-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는 훈계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짓는다.³² 이러한 윤리적 지침들은 코헬렛의 현재 즐거움에 대한 강조가 도덕적 책임의 포기가 아니라 필멸적 존재의 한계 내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가운데 진정한

30 윗글, 180-188, 209-215, 241-243, 247-248.

31 Fox, 윗글, 317-318. 팍스는 기뻐하라는 말이 쾌락주의가 아니라 젊음의 덧없는 순간을 잡으라는 실용적 윤리라고 주장한다. 심판(11:9b)은 윤리적 한계를 세워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한다.

32 Longman, 윗글, 278-279; Fox, 윗글, 330-332. 롱맨은 12:13-14를 책의 해결책으로 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윤리적 기반이다. 초기 회의적 태도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맞춘 행동에서 의미가 생긴다. 심판(12:14)은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팍스는 후기 부분을 전통적 지혜의 확인으로 본다. 코헬렛의 비관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리적으로 삶의 불확실성이 도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예상하고 공정하게 살라는 뜻이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권고이다.

4. 다른 지혜 문학과 관련된 코헬렛의 죽음관

1) 잠언과의 비교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잠언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현저히 다르다.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자주 대조하는 반면(예, 잠 10:27; 11:7; 14:32), 전도서는 도덕적 지위와 관계없이 죽음의 보편적 경험을 강조한다. 와이브레이(R. N. Whybray)가 말하듯이, 잠언이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진 질서 있는 도덕적 우주를 제시하는 반면, 코헬렛은 이 비전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칙과 예외들에 직면하고 있다.³³

그러나 이 차이는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두 책 모두 여호와의 지혜 틀 내에서 작동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개럿(D. A. Garrett)이 지적했듯이, 코헬렛은 잠언서와 모순되기 보다는 보완하며, 전통적 지혜가 부적절한 상황을 다룬다.³⁴ 잠언서 자체도 보상과 처벌의 일반적 패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예, 잠 13:23; 17:26), 이는 이 책들 사이의 긴장이 노골적인 모순보다는 지혜 전통의 복잡성을 반영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두 책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지혜의 기초로 강조한다. 이 주제가 잠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1:7, 9:10), 전도서의 중요한 지점에서도 나타난다(3:14; 5:7; 8:12-13; 12:13-14). 이러한 공유된 강조는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 아무리 곤혹스럽더라도 여호와의 지

33 R. N. Whybray,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89), 66-68.

34 D. A. Garrett,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4;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277-279.

혜 신학적 틀 내에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2) 욥기와 비교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욥기, 특히 욥 자신의 연설에서 발견되는 것과 더 가까운 유사성을 지닌다. 코헬렛과 욥 모두 인간 필멸성의 명백한 불의와 하나님 행동의 외견상 임의성에 대해 고민한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형태의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전통적 공식에 의문을 제기한다(욥 9:22-24; 10:2-3; 12:6; 19:6-7; 21:7-9; 24:1, 12; 전 3:16-17; 4:1-3; 7:15; 8:10-11, 14; 9:2-3).

크렌쇼가 관찰하듯이, 욥처럼 코헬렛은 고통과 필멸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대신 인간 존재의 신비에 정직하게 직면할 것을 주장한다.³⁵ 이러한 솔직함은 신앙의 거부가 아니라 삶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 앞에서 진실성을 요구하는 신앙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책들 사이에는 또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욥이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의 신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전도서에는 그러한 신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욥기에서 주인공 욥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결말을 맞이한다. 하지만 전도서의 코헬렛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얀젠(J. G. Janzen)의 관찰처럼, 코헬렛은 욥보다 훨씬 더 오래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서 뚜렷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³⁶

35 Crenshaw, 윗글, 103-105. 욥기와 전도서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표현하며 깊은 실존적 질문을 던진다. 크렌쇼는 전도서가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의 노력을 '터무니없다'고 선언한다고 말한다. 특히 전도서 3:18-21에서 그렇다. 욥기 7:7-10에서도 이런 절망이 울린다. 하지만 욥의 고통스러운 항의와 코헬렛의 체념한 관찰은 톤이 다르다.

36 J. G. Janzen, *Job*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26-27, 229-230, 251. 얀젠은 욥과 코헬렛이 고통, 불의, 의미 추구라는 인간 존재의 수수께끼를 다룬다고 본

이런 차이는 두 책의 신학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문학적 특성 때문이다. 욕기와 전도서는 모두 고통, 정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 쉬운 답을 거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성경이 삶의 복잡함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는지 보여준다.

3) 시편과의 비교

여러 시편은 코헬렛의 접근법과 병행하고 대조되는 방식으로 필멸성의 주제를 다룬다. 특히 시편 49편과 73편은 죽음의 공통된 운명에 대해 성찰하면서도 무덤 너머의 어떤 형태의 희망을 확인한다. 시편 49편 10-15절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라고 관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라는 선언으로 결론짓는다. 마찬가지로, 시편 73편은 악인의 외견상 번영으로 고민하지만 “주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라고 말한다.

이 시편들은 죽음의 보편성과 필멸 존재의 명백한 불평등에 대한 성찰이 코헬렛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내의 더 넓은 지혜 담론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이 담론이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죽음 너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더 명시적인 희망의 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브루거만(W. Brueggemann)은 구약의 지혜 문학, 특히 코헬렛(전도서)과 지혜 시편 같은 다른 텍스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

다. 하지만 그 반응은 다르다. 코헬렛은 초연한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며,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결론짓고, 삶의 덧없음과 궁극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 욕은 하나님과 열정적이고 대화적인 감동을 받으며,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직접적 만남으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새 관계로 회복된다. 양편에 따르면, 욕의 경험은 하나님의 현존과 신비에 뿌리박힌 희망을 제시하지만, 코헬렛의 비판적 긴장 수용과 대조가 된다.

는 이들이 성경에 함께 배치된 것은 인간의 죽음과 구원의 희망, 두 가지 심오한 진리를 인정하는 ‘대화’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들을 해결해야 할 모순으로 보지 않고, 브루거만은 인간 삶과 하나님 계시의 복잡성을 포용하는 신학적 변증법으로 간주한다.³⁷ 이 관점은 텍스트가 절망과 희망 모두에 진정으로 말하게 하며 단순한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외경 지혜 문학과와의 비교

(1) 집회서(벤 시라)와의 비교

집회서는 전도서와 유사하게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신학적 강조점을 보여준다. 집회서 41:1-4는 “죽음아, 너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주님의 선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어찌 거역하려느냐.”(공동번역)라고 말한다. 여기서 벤 시라는 코헬렛처럼 죽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으로 더 명확히 수용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회서가 죽음 이후의 명예와 기억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집회서 44장은 “다음엔 명성 높은 사람들과 우리의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공동번역)로 시작하여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기억을 강조한다. 이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전 9:5)는 코헬렛의 진술과 대조된다. 콜린스(J. J. Collins)가 지적하듯이, 벤 시라는 코헬렛보다 전통적 지혜에 더 가까우며, 도덕적 응보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표현한다.³⁸

37 Brueggemann, 윗글, 385-403.

38 John J. Collins, *Jewish Wisdom in the Hellenistic Ag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12-115, 135-138.

(2) 솔로몬의 지혜서와의 비교

솔로몬의 지혜서는 전도서와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혜서 3:1-9는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공동번역)라고 선언하며, 죽음을 단순한 종말이 아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의 전환점으로 제시한다.

윈스턴(D. Winston)은 지혜서가 헬레니즘 시대의 영향 아래서 영혼 불멸과 사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발전시켰다고 분석한다.³⁹ 이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3:21)라는 코헬렛의 불가지론적 질문과 뚜렷이 대비된다.

지혜서 2:1-5는 악인들의 입을 통해 “우리 인생은 짧고 슬프다. 수명이 다하면 별수없이 죽는다.”(공동번역)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코헬렛의 관찰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혜서는 이를 반박하며 의인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한다(지혜서 3:4). 니켈스버그(G. W. E. Nickelsburg)는 이를 전도서의 회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신학적 응답으로 해석한다.⁴⁰

(3) 외경 지혜 문학과와의 종합적 비교

외경의 지혜 문학들은 전도서와 공통적으로 죽음의 현실성과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 다른 신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39 David Winston, *The Wisdom of Solom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43; Garden City, NY: Doubleday, 1979), 25-32, 120-123.

40 George W. E. Nickelsburg, *Resurrection,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in Intertestamental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expand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71-82, 141-143.

공통점

- 죽음의 불가피성과 보편성 인정
- 현재 삶의 윤리적 중요성 강조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차이점

- 집회서: 전통적 지혜의 틀 안에서 죽음을 수용하며, 의인의 명예로운 기억을 강조
- 지혜서: 헬레니즘적 영혼 불멸 사상을 수용하여 명확한 사후 보상 교리 제시
- 전도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에 머물며, 사후에 대한 추측을 자제

레벤슨(J. D. Levenson)이 관찰하듯이, 이러한 다양성은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내에서 죽음과 사후 생명에 대한 활발한 신학적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⁴¹ 코헬렛의 신중한 불가지론은 이 스펙트럼의 한 극단을, 지혜서의 명확한 불멸 교리는 다른 극단을 대표한다. 이들 모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 한계 앞에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표현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코헬렛의 죽음관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혜 전통 내에서 진행된 역동적인 대화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각 텍스트는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죽음의 신비에 대한 고유한 응답을 제시하며, 이는 성경적 지혜 전통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증명한다.

41 Jon D. Levenson, *Resu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e Ultimate Victory of the God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67-84.

5) 비교 연구의 신학적 함의 종합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지혜 문헌들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코헬렛의 죽음관은 고립된 회의주의가 아닌 대화적 지혜의 산물이다. 잠언의 질서정연한 도덕적 우주관, 욕의 고통스러운 질문, 시편의 희망적 확신, 집회서의 전통적 수용, 그리고 지혜서의 명확한 불멸 교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코헬렛은 이러한 스펙트럼의 중간에서 경험적 정직성을 고수하며, 성급한 해답보다는 신중한 성찰을 제시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성경 지혜 전통이 단일한 교리적 답변이 아닌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함을 보여준다.

둘째, 코헬렛의 신중한 불가지론은 신학적 겸손의 모델을 제시한다. 잠언이 보상의 확신을, 지혜서가 불멸의 확증을 제공하는 반면, 코헬렛은 3:21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이다. 퍼듀(L. G. Perdue)는 이러한 태도를 경외심을 동반한 불가지론으로 해석하며,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⁴²

셋째,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은 보완적 진리로 기능한다. 각 문헌이 제시하는 관점은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잠언은 일상적 지혜의 관점에서, 욕은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시편은 예배의 맥락에서, 전도서는 실존적 성찰의 차원에서 죽음을 다룬다. 머피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다성음악적 접근은 죽음이라는 복

42 Leo G. Perdue,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91-195.

잡한 현실을 단일한 관점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⁴³

넷째, 코헬렛은 현재 중심적 종말론의 독특한 형태를 제시한다. 시편과 지혜서가 미래의 보상을 강조하는 반면, 코헬렛은 현재의 삶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라는 실천적 지혜이다. 오그든(G. S. Ogden)은 이러한 관점이 종말론적 희망과 현재의 삶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는 실현된 지혜의 한 형태라고 평가한다.⁴⁴

다섯째, 정경적 맥락에서 코헬렛의 기능은 비판적 교정자의 역할이다. 코헬렛은 잠언의 낙관적 확신이나 지혜서의 명확한 교리가 자칫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으로 흐를 위험을 경고한다. 동시에 욕의 격정적 항의와 달리 차분한 성찰을 통해 균형을 제공한다. 이는 건전한 신앙이 항상 자기성찰과 의문을 포함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지혜 전통 내의 자기비판적 목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지혜 문헌들과의 비교는 코헬렛의 죽음관이 성경 지혜 전통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그의 회의적 질문과 경험적 관찰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혜 교육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다양성 속의 일치는 성경이 인간의 궁극적 질문들에 대해 단순한 해답이 아닌 풍부하고 다면적인 지혜를 제공함을 보여준다.

43 Roland E. Murphy,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127-132.

44 Graham S. Ogden, *Qobeleth*, 2nd e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24-27.

5. 전도서의 에필로그와 틀

전도서의 에필로그(12:9-14)는 코헬렛의 죽음과 필멸성에 관한 진술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라는 최종 권고는 코헬렛의 회의적 관찰을 궁극적으로 언약 신앙의 전통적 틀 내에 위치시킨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12:14)라는 말은 코헬렛의 의인과 악인의 공통된 운명에 대한 이전 진술을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한다.

학자들은 이 에필로그가 코헬렛의 더 급진적인 진술을 ‘길들이기’ 위한 편집상의 추가인지에 대해 논쟁해 왔다.⁴⁵ 그러나 롱맨이 주장하듯이, 에필로그가 다른 손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코헬렛의 죽음과 명백한 불의에 대한 관찰을 읽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정경적 기능을 한다. 이 틀은 독자들로 하여금 코헬렛의 회의주의를 중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이끄는 교육적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도록 초대한다.⁴⁶ 여기서 프레임 내레이터는 코헬렛의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독백에 대한 핵심적인 신학적 교정을 제시한다. 그는 이 구절들이 책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목적이다. 롱맨에 따르

45 예를 들면, 크렌쇼는 에필로그를 코헬렛의 급진적 회의주의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대 추가로 본다. 12:13-14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을 강조해 코헬렛의 불안한 어조를 상쇄하지만, 책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본다. Crenshaw, 윗글, 192-194. 반면에 팍스는 에필로그가 책의 필수 부분이며 후대 추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편집자가 코헬렛의 가르침을 틀 짓는 시도다. 12:13-14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전통적 지혜를 확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헬렛의 회의적 태도를 인정한다고 본다. 에필로그는 의심과 경건을 균형 잡아 불확실성에도 하나님께 충실함이 삶의 의미라고 제시한다. Fox, 윗글, 316-318.

46 Longman, 윗글, 283-284.

면 이는 코헬렛의 허무 관점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면서, 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본다.⁴⁷

편집 틀은 또한 코헬렛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1:1)으로 인식하며,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이해해왔다.⁴⁸ 이 인식은, 역사적이든 문학적이든, 전도서를 더 넓은 솔로몬 지혜 전통과 연결시키며 코헬렛의 필멸성에 대한 성찰이 이스라엘의 언약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읽혀야 함을 시사한다.

6. 코헬렛의 수사적 전략

코헬렛의 죽음에 관한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수사적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도서 전체에 걸쳐, 코헬렛은 전통적 지혜에 도전하고 더 깊은 성찰을 유발하기 위해 과장법, 아이러니, 역설을 포함한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다. 크리스찬슨(E. S. Christianson)은 코헬렛이 단순히 신앙을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코헬렛은 의도적으로 회의주의적 페르소나를 채택하여 신앙의 기초를 시험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을 드러내며, 더 깊고 진정한 신앙적 성찰을 촉진하려 한

47 윗글, 281-284.

48 학자들은 코헬렛이 솔로몬인지 가명인지 논쟁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솔로몬을 저자로 본다. Seow, 윗글, 101. 하지만 비평학자들은 페르시아어 차용어와 아랍어적 요소를 들어 기원전 450-180년경 후기 저작으로 보고 솔로몬 저작을 배제한다. Fox, 윗글, 3. 일부는 코헬렛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문학적 인물로 보고 지혜를 담은 이야기 목소리로 해석한다. Longman, 윗글, 57-58.

다는 점을 강조한다.⁴⁹

이러한 수사적 접근법은 그의 죽음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하다. 죽음의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전통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코헬렛은 그의 청중으로 하여금 종교적 상투어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엔스는 코헬렛을 단순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신학적 도발자’로 묘사한다. 코헬렛의 필멸성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관찰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기회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삶의 허상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로 작용한다.⁵⁰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재의 축복을 즐기며, 진실성을 가지고 살라는 코헬렛의 반복적인 권고를 고려할 때 이 도발의 교육적 목적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훈계는 그의 죽음에 대한 회의적 관찰이 종점이 아니라 필멸성의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모두를 인정하는 지혜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사적 전략의 단계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리(E. P. Lee)는 코헬렛의 성찰이 단순히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학적, 수사적 기능을 한다고 본다. 죽음의 필연성과 최종성을 강조함으로써, 코헬렛은 인간의 통제, 확신, 자기 충족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린다. 부, 지혜, 업적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짓된 확신을 ‘없애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과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간을 만든다. 리는 이를 진정한 믿음으로 해석한다. 이는 피상적 확신에 의존하지 않고, 하

49 E. S. Christianson, *Ecclesiastes Through the Centuries*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7), 259-263.

50 Enns, *윗글*, 119-123.

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⁵¹ 이러한 이해는 신앙의 단순한 공식보다 지적 정직성과 영적 진실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더 넓은 성경적 지혜 전통과 일치한다.

7. 현대 신학적 성찰에 대한 함의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현대 신학적 성찰을 위한 몇 가지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그것은 필멸성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기를 거부하는 지적 정직성의 모델이다. 죽음이 종종 소독되거나 시야에서 숨겨지는 시대에, 코헬렛의 인간 유한성에 대한 거침없는 직면은 죽음의 현실에 대한 세속적 부정과 종교적 회피 모두에 대한 교정을 제공한다.

둘째, 코헬렛의 회의적 관찰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틀 내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델을 제공한다. 브루거만이 말하듯이, 코헬렛은 진정한 신앙이 의심과 당혹감

51 E. P. Lee,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110-118. 구체적으로, 리의 분석은 전도서의 반복된 주제에서 비롯된다. 인간 노력의 헛됨(해벨; 예, 전 1:2; 2:11)과 죽음의 보편성(예, 전 3:19-20; 9:2-3)이 그렇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전 9:5) 같은 코헬렛의 직설적 관찰은 죽음의 무게를 축소하려는 통념에 도전한다. 진부한 말 대신, 코헬렛은 독자로 하여금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리는 이 대면이 건설적이라고 본다. 이는 허세를 벗겨내고, 인간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며 신성한 신비에 열린 믿음을 키운다. 이는 전도서의 회의주의와 신뢰 사이의 긴장과 맞닿는다. 코헬렛은 궁극적으로 삶의 단순한 선물을 즐기라 권하고(예, 전 9:7-9),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를 인정한다(전 12:13). 리의 해석은 코헬렛을 순전히 허무주의로 보는 관점과 다르다. 대신, 그녀는 비판주의를 더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수사적 전략으로 본다. 이는 전도서를 절망과 실제적 믿음의 균형으로 보는 다른 학자들과 공명한다. 하지만 리는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을 긍정적 결과로 독특하게 강조한다.

의 정직한 표현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⁵² 이 모델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세속적 환원주의 모두가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반응을 제공하는 현대 맥락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셋째, 필멸성의 관점에서 현재 삶의 가치에 대한 코헬렛의 강조는 그 한계를 부정하지 않고 피조물의 존재를 긍정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데이비스가 주장하듯이, 현재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라는 코헬렛의 반복적인 권고는 죽음의 부정과 그에 대한 집착 사이의 중간 길을 제공한다.⁵³ 이 관점은 현재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도 그것의 궁극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기독교 신학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관점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현실과 궁극적 희망 사이의 긴장을 다루는 코헬렛의 방식은 두 차원 중 어느 하나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최소화하지 않는 기독교 종말론의 모델을 제공한다. 바톨로뮤가 말듯이, 현재 필멸성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희망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코헬렛은 신약 종말론의 '이미 그러나 아직' 역학을 예측한다.⁵⁴ 이 긴장은 현재 윤리적 행동과 종말론적 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현대 신학적 논의에서 특히 관련이 있다.

52 Brueggemann, 윗글, 400-403.

53 E. F. Davis, *Proverbs, Ecclesiastes, and the Song of So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181-182, 184, 187-188.

54 Bartholomew, 윗글, 375-377.

8. 나가는 말

이 연구는 전도서에 나타난 코헬렛의 다면적인 죽음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주요 구절 분석, 신학적 주제 탐구, 그리고 다른 지혜 문학과 비교를 통해, 코헬렛의 외견상 비관적인 죽음에 관한 진술들이 그의 지혜 담론 내에서 수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허무주의를 옹호하거나 전통적 신앙을 거부하기보다, 코헬렛은 피상적인 경건에 도전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긍정하는 더 깊은 지혜를 배양하기 위해 필멸성에 대한 직설적인 관찰을 사용한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헤벨로 반복해서 특징짓는 그의 행위는 절대적 무의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신비롭고 역설적인 특성을 표현한다.

코헬렛 담론의 긴장들, 예를 들면, 경험적 관찰과 신앙 사이, 현재 필멸성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 죽음의 보편성과 의로운 삶의 가치 사이의 긴장은 해결되어야 할 모순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변증법이다. 이러한 긴장은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단순한 답변을 거부하는 성경적 지혜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

코헬렛을 이스라엘의 전통 내의 지혜 교사로 식별하는 편집 틀을 포함한 정경적 맥락 내에서 읽을 때, 전도서는 다른 성경적 관점과 모순되기보다는 보완하는 필멸성에 대한 심오한 관점을 제공한다. 죽음의 현실과 명백한 종결성에 대한 솔직한 인정은 궁극적으로 필멸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창조주에게 주의를 향하게 한다.

현대 독자들에게, 코헬렛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보다는 통합하고, 그 한계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추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신앙의 모델을 제공한다. 죽음의 부정과 초월적 회

망의 상실 모두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코헬렛의 고대 지혜는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련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 대한 고찰”, 「구약논단」 18/1 (2012.3), 82-104.
- 구자용, “죽음 - 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실존: 구약 성서적 창조와 지혜 전승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19/3 (2013.9), 348-375.
- 이은애, “헤벨(hebel)과 죽음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관성”, 「구약논단」 30/4 (2024.12), 282-310.
-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3 (2010.9), 196-217.
- Alter, R., *The Wisdom Books: Job, Proverbs, and Ecclesiast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0).
- Bartholomew, C. G., *Ecclesias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Brown, F. et al., eds., “הֶבֶל” i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1979).
- Brown, W. P.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hristianson, E. S., *Ecclesiastes Through the Centuries*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7).
- Clines, D. J. A. et al., eds., “הֶבֶל” in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Collins, John J., *Jewish Wisdom in the Hellenistic Ag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Crenshaw, J. L., *Ecclesiastes: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7).
- Davis, E. F., *Proverbs, Ecclesiastes, and the Song of Song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Enns, P., *Ecclesiastes* (Two Horizons Old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1).
- Fox, M. V., *The JPS Bible Commentary: Ecclesiaste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_____,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 Fredericks, D. C. and D. J. Estes,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Nottingham: Apollos, 2010).
- Garrett, D. A., *Proverbs, Ecclesiastes, Song of Song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4;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 Gordis, R.,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3rd ed.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 Janzen, J. G., *Job*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Krüger, T., *Qoheleth: A Commentary*, trans. O. C. Dean Jr.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Lee, E. P.,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 Levenson, Jon D., *Resu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e Ultimate Victory of the God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Lohfink, N., *Qohele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Sean McEvenu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Longman, T.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 Miller, D. B.,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Murphy, R. E.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 _____,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23A; Dallas: Word Books, 1992).
- Nickelsburg, George W. E., *Resurrection,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in Intertestamental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expande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Ogden, G. S., *Qoheleth*, 2nd ed.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7).
- Perdue, Leo G.,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Histo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Rainey, A. F., "A Study of Ecclesiastes,"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5/1 (1964), 148-157.
- Ryken, L., *Words of Delight: A Literary Introduction to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Seow, C. 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18C; New York: Doubleday, 1997).
- Shields, M. A.,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Sun, C., "Ecclesiastes among the Megilloth: Death as the Interthematic Link,"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2 (2017), 185 – 206.
- Takeuchi, K., "Death and Divine Judgement in Ecclesiastes"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5).
- Whybray, R. N.,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89).
- Winston, David., *The Wisdom of Solom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43. Garden City: Doubleday, 1979).

검색어

코헬렛(전도서), 죽음, 헤벨, 성경의 지혜 문헌, 하나님의 주권

[ABSTRACT]

A Study on Qohelet's Perspective on Death

Jinkyu Kim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Qohelet's perspective on death as presented in the book of Ecclesiastes. Through careful exegetical analysis of key passages and examination of the book's broader theological framework, the research argues that Qohelet's seemingly pessimistic statements about death serve rhetorical purposes within his wisdom discourse. Rather than advocating nihilism, Qohelet uses direct observations about death to lead his audience toward genuine faith that acknowledges human limitations while embracing divine sovereignty.

The methodology employs multifaceted approaches including exegetical analysis of the Hebrew tex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emantic field of "hebel" (vanity/vapor), literary analysis examining how statements about death function within the book's overall structure and rhetorical strategy, and a canonical approach that situates Ecclesiastes within the broader theological framework of Hebrew wisdom literature.

The research analyzes key death-related passages (Ecclesiastes 3: 18-22, 9: 1-10, 12: 1-8), explores theological themes including the concept of "hebel," God's sovereignty in relation to human mortality, and the value of present life from a mortality perspective. It also compares Qohelet's discourse on death with other biblical and deuterocanonical wisdom literature (Proverbs, Job, Psalms, Sirach, The Wisdom of Solomon) and

www.kci.go.kr

considers the epilogue's role in framing Qohelet's observations within covenant theology.

The study concludes that Qohelet's discussions of death express the mysterious and paradoxical nature of human existence before God rather than absolute meaninglessness. The tensions in his discourse — between empirical observation and faith, present mortality and divine judgment, death's universality and the value of righteous living — reflect the complexity of biblical wisdom that refuses simple answers to life's deepest questions. For contemporary readers, Qohelet offers a model of faith that integrates difficult questions, values present existence without denying its limitations, and maintains hope in God's justice without presuming to fully comprehend it.

key words

Qohelet (Ecclesiastes), Death, Hebel, Biblical wisdom literature,
Divine sovereignty

투고일 : 2025년 04월 15일

심사일 : 2025년 05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6월 08일

www.kci.go.kr